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3주일 / 교황주일
제36권 31호(다해) 2016년 6월 26일

[묵사]

칭찬과 격려는 못해줄망정,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시며 집을 주고 있다.
따라오라는 말씀인지 말라는 말씀인지 ...
아버지의 장례식도 팽개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다.
기본적인 도리도 못하는 불효자가 되라고 ...
식구들과 작별인사를 할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청한다.
역시 "안돼"이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몰아세운다.

누구 하나 예수를 따라나서는 사람이 있겠는가?

기특하지도 않는가?

격려해주고 사기를 북돋아줄 생각은 없고...

어느 누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다.

심장에서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사랑 때문이다.

최 많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당신의 온 삶을 고통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사랑에 지독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들에게 철저한 추종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사랑에 지독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지독하게도 바라고 계신다.

그래서 지독하게 요구하고 계신다.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런 단호한 요구에

얼마나 큰 사랑이 담겨 있는지 철저하게 알아야 한다.

그때는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 나서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따라 나섬이 얼마나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성소후원회(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엄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도요 저녁 미사	(연) (생)김영덕 다니엘 & 박현주 카타리나 가정
주일 낮 미사	(연) 이정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현시영 요셉, 고준희 제임스, 이용식 베드로, 조지 가보라,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정 올리안나, 서성용 베드로, 오진 베드로, 오종순, 천서인 레지나, 제리 크렘씨 (생) 박정미 클라라, 토서3반가정, 티파니 권 요세파나, 김재환 마르코, 송영애 로사, 박인식 토마스 & 박리디아 가정, 권오상 바오로, 클레어마리 허정은, 유철희 바오로, 황윤재 베드로 가정, 배기엽 클레멘스 & 베난군 세레나 김지훈 대전 안드레아,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열왕기상(Kings) 19,16ㄴ.19-21

화답송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당신이 저에게 생명과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제 2독서 갈라티아서(Galatians) 5,1.13-18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복음 루카 (Luke)9,51-62

영성제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기록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3. 식민지 시대의 교회(1910~1945년)

3-1. 식민 통치와 선교 정책

그런데 일제는 한일합방 이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교회 활동에 대한 각종 통제를 강화해 나갔다. 곧 그들은 ‘사립학교령’, ‘신문지법’, ‘포교 규칙’ 등 각종 법령과 행정 명령을 제정하여 교회의 활동을 실제로 규제하였다. 여기에서 식민지 당국자가 주장하는 ‘종교 자유’의 허구성이 여실히 확인되었다. 식민 당국이 종교계에 대해 간섭하면서 주장하던 원칙도 ‘정교 분리 정책’이었다. 또한 총독부 당국에서는 1915년 ‘포교 규칙’을 제정하여 교회 활동을 직접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포교 규칙에 따라서 선교사나 성직자는 물론 수녀나 공소 회장들까지도 총독부의 허가 없이는 선교를 못 하게 되었다. 성당이나 공소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야 했고, 설립 허가를 위해서는 그 설립의 이유와 유지 방법이 충분하다고 인정받아야 하였다. 이 때문에 성당의 설립과 선교에는 상당한 간섭이 따르게 되었다. 일제의 헌병 경찰들은 포교 규칙의 시행 여부를 조사하고 감시한다는 구실 아래 수시로 교회를 출입하며 성직자와 신자들을 괴롭혔다. 그리스도교계 일각에서는 이 규칙의 철회를 요청하게 되었다.

한편 3·1 운동의 결과로 포교 규칙을 폐지한 이후 총독부 당국은 각 교단의 법인화를 추진하였다. 천주교는 1924년 총독부의 승인을 받아 천주교 유지재단을 등록했고, 이에 이어서 개신교의 각 교단도 법인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로써 식민지 조선의 교회는 총독부 학무국의 관할을 받는 ‘합법적’ 기구로 자리 잡았으니, 법의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총독부의 관할과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1920년대 이후의 교회 활동에 대한 총독부의 간섭이 결코 완화된 것은 아니다.

또한 일제는 전시 체제를 강화하면서 1939년 ‘종교 단체법’을 제국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종교 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황도 정신’(皇道精神)과 ‘신국 사상’(神國思想)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이 규정을 위반하는 종교 단체를 폐쇄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강압적 종교 단체법의 체제 아래 교회는 1939년 이후 민족이 해방되는 1945년에 이르기까지 줄곧 총독부 당국의 감시 대상이었다.

<계속>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19	119	234
봉헌	270	270	259
성체	279	279	292
파견	312	312	238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루카 9, 51)

하늘에 올라가실 때를 아신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 속에서 뚜렷한 방향과 의지를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이 남겨두고 가실 사람들과 세상의 모습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야기에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인들이나 그들의 완고함을 보며 저주를 떠올리는 제자들의 거친 언어들,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도 앞의 일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나, 자신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길을 정하고 떠나시려는 예수님 앞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사연에 불안해하셨다면 가지 못하셨을 길입니다. 무엇 하나 이루신 것도 없어 보이는 세상과 사람들을 떠나 예수님은 끝내 '예루살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시간 예루살렘은 예수님께는 '하늘나라'지만 우리에게겐 '죽음'입니다.

오늘 복음을 대하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놓여진 어지러운 사람들 속에 우리를 밀어 넣고 묵상과 반성을 되풀이하지만, '교황 주일'에 읽게 되는 복음은 아무래도 주님의 모습에서 눈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아버지의 뜻이니 '그래도 가야 한다'가 아니라, 꼭 가야만 '복음'이 완성된다는 의미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유로 하느님께 떨어진 세상에서 끝까지 정의와 선함을 지켜내는 선택은 그것이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셨습니다. 결국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 세상이 놓이고 사람들이 놓였을 때 그들도 주님과 같은 선택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믿음이었고 그 길을 걸어 하늘나라를 열어 놓으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루카 9, 62)는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교황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리스도의 길에 나선 우리의 첫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들린 쟁기는 여전히 세상에 하늘나라를 일구는 도구요 열쇠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그 속에서 예루살렘은 여전히 죽음을 각오하는 하늘나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비의 회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교황님의 쟁기질이고 우리는 자비의 실천으로 주님의 얼굴이 되도록 한 해를 살아야 합니다. 교황님의 '자비의 쟁기'가 이 세상에 죽음의 위협을 거두고 하늘나라를 가져오기를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 자비의 예루살렘으로 걸어 갑시다.

◆ 정호 빈첸시오 신부 / 울산장애인복지관장

기도묵상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황제와 걸인, 종과 주인도 그렇게 말합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형제입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 -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교복 레오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김금자 데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도남 1,2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이민상 요한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도복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오창근 베드로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6월29일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 축일로 오창근 베드로 본당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오늘주일 전신자에게 맛있고 시원한 미역국을 대접합니다. 하버 카슨구역에서 봉사해 주십니다.

☞ 감사합니다. ☜

- ◆ 7월1일부터 2016년~2017년(6월30일까지) LA 대교구의 사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백삼위 본당에서도 평신 사도협의회가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유입되었습니다. 그 동안 평신도 사도직에 봉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로 합류하신 사목위원들과 함께 본당발전을 위해 힘껏 노력합니다. 본당신부님께서 임명하신 사목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회장 : 최기남 야고보
- 부회장 : 박인식 토마스, 오혜숙 루시아
- 총무 : 현석주 아오스딩
- 부총무 : 정판영 레오, 김명재 아가다
- 재무분과 : 김병태 요셉
- 소공동체 : 김준 방지거
- 전례분과 : 김성현 유스티노
- 복음화분과 : 이영석 크리스토퍼
- 사회복지분과 : 박현희 프란시스코
- 시설관리분과 : 김찬구 요한
- 조경분과 : 김양금 안나
- 청소년분과 : 최이원 바르콜로메오
- 문화 / 체육분과 : 박개순도미니코
- 홍보분과 : 박경주요아킴

- ◆ 주일학교 방학기간 미사 시간 조정 안내

주일학교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같이 성인 미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일미사는 아침 7:30과 11:00 미사만 있습니다.

- 실시기간 6/26 주일부터 8/28 주일까지

- ◆ 배론 청년회원을 모집합니다.

대학생부터 미혼남녀 청년들을 위한 모임입니다. 토요일 저녁 미사후에 회합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유보나 보나 ☎(310)755-9837

- ◆ 강요셉신부님의 영성피정 CD를 사전주문 받아 제작합니다.

- 가격: \$10 (1 set 6개 강의), 주문마감 7월4일
- 성당 웹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103skcc.org 안에 자유게시판) 강의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 (310)780-0369

- ◆ 주일학교 견진반 1,2 등록접수...사무실에

- 대상: 9학년이상 미 견진자
- 시작 : 9월부터 (자세한 일정은 추후공지)
- 담당교사: 서정우, 제니퍼 현, 씨니황

- ◆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뜻이 있는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주보 광고에 협찬해 주신 광고주들께 감사 드립니다.

매주 발행되는 백삼위 주보 광고를 후원해주시는 광고주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7월부터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됩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사무실로 연락 해 주십시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6월26일(주일) : *하버/카슨 (미역국: \$0)
- 7월3일(주일) : *성령 기도회 (핫도그 \$ 0)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강숙경 권태만 김대우 김옥찬 김진우 김철민 김형순 민경근 박경자 박미경 박운모 박정자 서영자 손 석 송영미 신순철 양영관 엄세중 윤선희 이미예 이우성 이인석 이태옥 임 순 정남형 최지영 한장환 한창주 호경진 홍석인 황인중	성전헌금	강미순 강숙경 권태만 김대우 김철민 민경근 박정자 손 석 신순철 양영관 윤선희 이미예 이우성 이인석 임 순 정남형 최지영 한장환 한창주 황인중
합계:\$3,635		합계 : \$1,385	
주일미사헌금 : \$2,762		체육대회 쌀값 환불 : \$ 250	

◆남가주 남성 제41차 꾸르실료 수료자 환영식

- 수강자 : 김인자 요세피나
- 환영식 : 오늘주일(26일) 오후 4시30분, 강당

◆남가주 남성 제 41차 꾸르실료 교육

- 일정 : 7월 14일(목) ~17일 (주일)
- 신청마감 : 7월 3일(주일)
- 문의 : 전복레 데레사 ☎(909)709-3181

◆제 29회 남가주 성령채신대회

- 일시: 7월 30일(토요일)-31일(일요일)
- 장소: 이스트 엘에이 칼리지
- 강사: 손 광배 도미니코 신부(인천교구 성령지도 신부)
김 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팔로티회)
신 상현 야고보 수사(꽃동네)
- 참가비:\$25(예약시 \$20)
* 도시락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연락하여 주십시오.*
- 문의: 각 분당 성령기도회장 및 봉사회 ☎(714)343-4771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백삼위 한국학교 여름 수학 교실
 - 일시 : 6월 25일 ~ 8월 7일 오전10시~오후12시
 - 대상 : 현재 A (5,6학년), B (7,8학년)
2. 제17차 한국어 교사 학술대회
 - 주제 : 소통과 융합의 배움 중심 한국어 교육
 - 기간 : 8월 12일(금)~13일(토)
 - 장소 : Holiday Inn. 14299 Firestone Blvd, La Mirada, CA
3. 제2회 차세대 세미나
 - 대상 : 한글학교 TA (9학년 이상과 대학생)
 - 기간 : 8월 13일(토) 오전 9시~오후 8시 30분
 - 장소 : Holiday Inn. 14299 Firestone Blvd, La Mirada, CA

남가주 소식

◆성서 사십주간 신약성경 개강

- 일시 : 2016.6.21~2016.12.13(7.26~8.23방학)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12시
- 준비물 : 성경, 필기구, 개인컵
- 회비 : \$70(교재비 별도)
- 장소 : 남가주 가톨릭 성서모임센터(CBLM)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문의 : (714) 521-1345

◆제 22차 남가주 선택주말(Choice Weekend)

- 대상 : 24~36세 사이의 남가주 가톨릭 미혼남녀
- 일시 : 8월 12일(금) ~14일(주일)오후
- 참가비 : \$300(반액은 본당지원 함)
- 신청마감 : 6월 25일
- 장소:드폴센터 420 DATE STREET MONTEBELLO, CA 90640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이순자 비비안나 6/9(목)오후4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장수영 패트리치오 6/11(토)오후6시 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560-7120 6/17(금)오후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김대우 비오 6/25(토)오후5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오상준 토마스 6/11(토)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우영희 엘리사벳 6/17(금)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준방지거 6/17(금)오후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테레사 6/14(화)오전11시
	3	김유미 사비나 850-2822	김유미 사비나 6/18(토)오후6시30분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최미열 클라라 6/19(일)오후6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 /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유명련 마리아 749-3151 6/11(토)오후7시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송재훈 필립보,377-4219 6/10(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정판영 레오 6/17(금)오후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 루시아 562-355-0499 6/4(토) 오후6시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이귀란 아녜스 6/14(화) 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사목회의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구역장/ 반장회의	1시
-----------	----

뜻

브라질에서 온 34살 청년 '필립'을 만났습니다. 은행에 다니는데 휴가 15일 동안 산티아고 순례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아스토르가'에서 출발해서 산티아고까지 열흘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처음 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좋은 곳에서 휴가를 즐겨도 되는데 무거운 배낭을 메고 힘든 순례를 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내년에 하게 될 앞으로의 결혼생활과 암으로 일년 넘게 병마와 싸우다 어제 죽은 친구를 위해 이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 브라질 청년에게 순례는 결혼과 친구의 죽음 속에서 드러난 하느님 뜻을 찾는 여정입니다. 아직 그 뜻을 명확히 알지 못해서 등에 짊어진 짐이 무겁지만 견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 뜻을 찾아서 걸어갈 뿐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입니다. 하느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걷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걷는 것' 이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느님의 뜻'을 찾는다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우리를 견게 만듭니다. 또한 걸으면서 목적 의식이 더 명확해집니다. 매일 한 발자국 걸으면서 우리가 지나온 그 길에 새겨진 하느님 뜻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마태 7,21).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마태 7,24). 아버지의 뜻은 다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여정을 걸으면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가를 깊이 깨달아갑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느님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되어갑니다.

◆ 성 베네딕도회 라바날 델 까미노 수도원/인영균 클레멘스 수사신부

[알고 싶습니다]

죄를 고백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꼭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고해성사는 잘못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없애는 작업이

아닙니다. 다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공놀이를 하다가 유리창을 깨뜨린 아이가 자신의 처지를 어른께 알리는 일은 제일 빠른 사건 수습 방법이지만 깨진 유리창은 그대로인 것과 같지요. 죄를 지었을 때에도 잘못을 하느님께 말씀드림으로 용서를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말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백을 하는 일이 웬지 망설여지고 두렵기도 해서 때론 은근 슬쩍 넘어갈 궁리도 하게 됩니다. 교부들이 고해성사를 "고통스러운 세례요, 일종의 정화"라고 말한 까닭이겠지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다짐하신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의 계약에는 취소조항이 없습니다. 만기날짜도 휴일도 없이 늘 유효합니다. 단 한 가지, 언제든 무슨 죄이든 내 스스로 그분의 용서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는 죄를 없애는 마술이나 아픔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나은 삶을 향한 구체적인 각오를 돕습니다. 회개가 단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거듭될 수 있다는 사실도 나아감의 길에 놓인 징검다리로 생각해보면 정말 든든한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의 크신 자비가 느껴지나요? 죄가 없어지는지, 별만 면하게 되는지를 셈하기보다 그분께로부터 온 자비의 계약이 얼마나 풍성한지 새겨보기를 권합니다.

◆ 가톨릭 부산주보

[웃고 갑니다]

신부님과 스님...

외국엘 자주 나가시는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은

출국신고서 직업란에

항상 '신부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번에도 그 신부님은...

역시 출국신고서 직업란에 '신부님'이라고 적어

공항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공항직원이

가우뚱 하며 물었습니다.

'신부님! 지난번 출국하실 때도

직업란에 꼭 '신부님'이라고 쓰시던데

그냥 '신부'라고 쓰시면 안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 하시는 말씀!!

"그러면 당신은 스님들이 '스'라고 쓰는 거 봤슈?..

용기있는여성 에스테르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사에서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거대한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큰 축제를 열었습니다. 잔치 중에 술에 취한 임금은 기분이 좋아 아내인 와스티 왕비를 불러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나의 왕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모든 이에게 보여주고 싶구나.” 그러나 임명의 명령을 전하러 간 시종에게 왕비는 무엇이라 답을 했고, 그녀는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에스테르기1,1-22

수사에는 모르도카이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이 어린 조카 에스테르가 있었는데, 그녀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친딸처럼 보살폈습니다. 마침 신하들은 새 왕비를 구하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에스테르는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크세르크세스 임명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에게 궁 안에서 무엇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에스테르기2,1-18

에스테르는 크세르크세스 임명의 왕비가 되었고 모르도카이도 궁중의 관리자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하만이란 사람이 재상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도카이를 무척 미워해서 페르시아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려 흥계를 꾸몄습니다. 하만은 임금에게 유대인들이 반역을 할 것이라 고하고 온 지방 수령들에게 유대인을 모두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라는 편지를 발송하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모르도카이는 에스테르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하만은 왜 모르도카이를 미워하게 되었나요? 그리고 에스테르는 모르도카이의 전갈을 받고 무엇을 부탁하고 또 어떻게 행동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에스테르기2,19-8,17

에스테르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하만과 그의 아들 10명은 모르도카이를 매달려고 마련해 놓았던 교수대에서 오히려 자신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을 부림절이라 하여 축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림절은 유대인들이 사는 곳 어디서든지 지키는 민족의 축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에스테르가 신앙의 자세를 갖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수백만 명의 동족을 구한 것을 기억합니다.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가서 수사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 저를 위하여 함께 ()해 주십시오. ()동안 밤이고 낮이고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시녀들과 함께 단식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법을 거스르는 것이긴 하지만, ()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게 되면 기꺼이().”(에스 4,16)

“아,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고 또한 임금님도 좋으시다면, ()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청입니다. 아울러서 ()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에스 7,3)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장

똥파리 한 마리

청소 중에 똥파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지.
달려드는 순간 나도 모르게 주저앉았는데
온몸엔 소름까지 돋았어.
파리 한 마리도 너무 들어대니 두렵더군.
파리를 피해 구석에 서 있었더니
그 동안 손에 잡히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내가 막무가내 달려들었던 탓이 아닐까 했어.
사방 벽에 부딪히며 웅웅거리는 똥파리가
남 같지가 않더군.

-이영 아네스-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5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제마-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 (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310) 408-0883 cell
 suziechoihomes.com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함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미리암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	--	--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 Bl. #1110 LA(에퀴터블)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혜정 마르타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운동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거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